

# 장흥우드랜드, 3회 연속 '추천 웰니스 관광지' 선정



## 자연/숲 치유 부문 선정...최고의 치유 자원 평가 정종순 군수 "대한민국 웰니스 관광 중심지 도약"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가 한국관광공사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3회 연속 선정됐다. 이로써 우드랜드는 지난 2017~2018년, 2019~2020년에 이어, 2021~2022년까지 '추천 웰니스 관광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국민들의 건강

한 삶을 위해 웰니스 관광지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힐링/명상, 뷰티/스파, 자연/숲치유 등의 테마를 갖춘 시설들에 대한 프로그램 현황과 주요 시설들을 평가했다. 여기에 전문적인 자격증 보유 여부, 홍보·마케팅 실적, 2019년~2020년의 운영 실적과 향후 계획안을 중

합 검토해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했다. 자연/숲 치유 부문에 선정된 우드랜드는 장흥군에서도 최고의 건강과 치유의 자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연친화형 숙박시설, 무장애 등산로 말레길, 편백소금집 등이 우드랜드의 핵심 치유 시설로 꼽힌다. 특히, 산림 치유 체험 프로그램 서비스와, 편백소금찜질을 통한 소급해독 기능 등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와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의 치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된 곳은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남도로부터 추천 관광코스과 같은 여행 상품 개발과 맞춤형 홍보·마케팅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편백숲 우드랜드는 청정 장흥의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로운 삶의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곳"이라며, "맑은 물, 푸른 숲의 지역 자원을 잘 가꿔 대한민국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통해 지역 발전 유도

진도군이 진도읍 도시여건을 반영한 도시 발전 도모에 나선다. 17일 진도군에 따르면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고려한 특성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장기발전 구상을 위해 '진도읍 남부권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용역을 통해 도시발전 미래상

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또 종합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통해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 지역 기반 구축과 도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용역은 올해 11월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진도읍 남부권 도시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등 행정절차가 이행된다. 군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진도=조상용기자

## 강진군 성전면 도시재생대학 주민참여 '활발'

오는 22일까지 주민 20여 명 교육 참여해 총 6주간 진행



강진군은 주민들이 참여해 성전면의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는 교육과정으로 '성전면 도시재생대학'을 지난 달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성전면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두고 있는 주민 20여 명이 이 교육에 참

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재생 예비사업 대상자인 월평리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다. 이번 교육은 총 6주간의 과정으로 12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성전면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주민참여 도시

재생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기초교육 ▲지역자원 발굴 및 문제점 찾기 ▲쇠퇴지단 및 잠재력 분석 ▲도시재생 핵심콘텐츠 및 단위사업 발굴 ▲커뮤니티시설 활용 계획 수립 ▲안전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강진군은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참여형 교육을 통해 주민주도로 성전면의 도시재생 목표와 세부사업계획을 도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방식을 적용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감염 예방을 위해 수업 시작 전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코로나19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코로나19로 연기 결정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24일간 개최하기로



전라남도와 완도군이 공동 개최하는 2021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내년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24일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재)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전망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박람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개최된다. 완도=김광수기자

세계 최초 해조류를 주제로 하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지난 2014년과 2017년 개최하여 해조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를 국내외에 알렸다.

지난 15일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기와 취소 여부 안전을 상정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1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조직위원회 이사장인 신우철 군수는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온 박람회를 정상 개최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며 "앞으로 1년 더 착실하게 준비하여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해조류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완도가 세계 해조류 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기자

## 해남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가공식품 HACCP인증 획득

해남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가 지난 12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제품은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액상차, 과채주스, 잼류 3개 유형, 5개 품목이다. 해남군은 소규모 가공 창업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땅끝해남식품특

화단지내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센터내에는 분말, 과립, 쥬, 잼 등으로 가공할 수 있는 54종, 71대의 장비가 설치돼 있으며, 가공된 농산물은 '땅끝이랑' 공동브랜드로 상품화할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